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생태적 관련종(ERS) 작업반 회의 참석 결과

□ 개요

- (일시/장소) '26.3.3(화)~3.6(금) / 화상회의
- (참석자)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지, 인니, 남아공, NGO 등 약 40명
- (주요의제) 바닷새 우선순위 중 및 고위험 해역, 전자감시 등

□ 주요내용

○ 바닷새 우선순위 중 및 고위험 해역

- ERS 작업반에서 수행한 SEFRA*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바닷새 우선순위 중 및 고위험 해역에 관한 일본과 뉴지의 문서 발표가 있었음

* SEFRA(Spatially Explicit Fisheries Risk Assessment: 공간 정보 반영 어업 위험 평가)

- 일본은 SEFRA가 유용한 도구이지만, 어업 외 바닷새 폐사 원인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현재 SEFRA에 투입되는 정보 자체가 불완전(바닷새 종 미구분)하여 결과도 불완전한 한계가 있다고 하였고, 과학자들도 하기 어려운 종 구분을 옵서버들에게 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 일본은 현재의 정보만으로 우선순위 어종 그룹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위기 종이 가장 많은 great albatrosses 그룹을 우선순위 그룹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음. 어업과의 균형도 고려하면서 바닷새 보존을 더 강화해야 하는 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 일본 제안에 대해 어업 이익에 대한 고려 하에 바닷새 보호 해역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개별 어종이 아닌 상위 그룹 수준의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었음

- 뉴지는 SEFRA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 고위험 해역을 제안하였음. 우선순위 해역에서는 20% 사람 옴서버 커버리지 또는 100% 전자감시 및 최소 10% 녹화물 검토를 제안하였음
- 일본과 뉴지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작업반이 수립되었고, 소작업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해역 내 바닷새 혼획 저감을 위해 다음 옵션들을 총회에 제안하기로 하였음:
 - 옵션1: XX% 사람 옴서버 커버리지 또는 XX% 전자감시 및 XX% 녹화물 검토
 - 옵션2: 고위험 해역에서 어획노력을 XX% 감축
 - 옵션3: 고위험 해역 내 조업시 저감조치 강화(예, 3개 저감조치 모두 실시, 낚시 보호장치, 야간투승 우선시) 또는 부수어획 한도 또는 비율 수립(최소 모니터링 요구사항 동반)
- 고위험 해역을 금어해역으로 설정할 경우, 금어해역 바로 밖에서 어획노력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버퍼링 해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추가적인 저감조치 도입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작업반은 단계별(기간, 해역) 접근을 권고하고, 회원별 고위험 해역 내 바닷새 저감 조치 계획을 매년 제출하는 과정 수립을 권고하기로 하였음

○ 전자감시(EM)

- 뉴지는 24년에 자국이 제출한 EM 데이터를 '검토되지 않은 EM 데이터'라는 이유로 사무국이 ERS 데이터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였고, 향후에는 검토된 데이터를 제출할 것이며, EM에 관한 어업인들의 신뢰와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 CCSBT 요구사항(10%)에 따라 EM 데이터를 제출하겠지만, 선단별 EM 커버리지 및 녹화물 검토 비율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음

○ 기타

- CCSBT 다개년 바닷새 전략 경과에 관한 검토를 27년 ERS 기술작업반에서하기로 하였음. 전략 내 정책적 요소 및 구속력에 관해서는 이행위에서 논의가 필요함이 언급되었음. 27년 ERS 기술작업반 개최 형식은 논의내용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결정이 필요함
- 상어, 바다거북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마련은 다른 기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공감하였고, 다른 기구와의 소통 및 정보 교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 NGO는 CCSBT에서 ERS 결의 이행에 관한 심도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다른 기구의 조치 이행에 대해 CCSBT에서 상이한 이행 평가를 하게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음